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탄력

### 무주군, 환경부 신규 사업 선정 국비 30억원 확보... 2023~2025년 조성

무주군이 환경부로부터 2023년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환경기초 시설에 갖는 기피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주민참여 수익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적산면 방이리 62-2 일원에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리온실과 저온창고 등 스마트 팜 특화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여열(남은 열)을 이용해 고소득 특화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특화작물 재배기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립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자발적 지역주민들의 협업체를 구성해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창출과 함께 지역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군은 특히 스마트 팜 특화작물 재배단지와의 연계해 농산물 체인 유통망 구



무주군청사 전경

축, 그리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유통 체계가 마련되면서 지역특화 유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역특화 유통망 구축을 통한 생산 농산물의 품질유지 및 상품성 강화, 지역명품화, 판매 경쟁력 강화 등 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환경위생과 이형재 과장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해 신규 소득원이 발굴될 전망이다"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 체류형 신규 관광자원으로써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위험도로 17곳 정비 기대

###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주민숙원 해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은 국토부의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립영역에 안성면 죽천 회전교차로 개설사업 등 무주군 관내 병목지점 개선이 요구되는 10개 사업과 실천면 두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성면 죽천 회전교차로 개설사업은 덕유산 나들목과 국도 및 국도9호선이 교차하고 있어 주민들이 운전자 혼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천면 두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도로 굴푼 및 내리막 차선에서 과속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선형

개선 사업을 요구해왔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24일 사업 예정지를 다니며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무주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무주군이 지형 특성상 구배가 심하고 굽은 길이 많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번 용역대상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모두 무주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꾸준히 건의해온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립영역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에 사업대상



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에 포함되면 2023~2027년 5개년에 걸쳐 선형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국토부에 건의된 무주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실천면 두길1~4지구와 삼공지구와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적산면 사산, 실천면 내제봉문과 삼공리, 적산면 여원마을과 삼가마을, 부남면 가당 1·2회전교차로 개설, 굴암 평면교차로 개설, 무풍면 삼거리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품질 좋은 무주산 농·특산물이랍니다'

### 군, 추석 서울장터 참여

### 내달 5일부터 3일동안

무주군이 추석을 앞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광장 직거래 장터에서 무주산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농가 소득이 기대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광장 직거래 장터에서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정무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함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열고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 서울장터 농·특산물 홍보관측 행사에는 천마가공 제품, 사과, 머루와 인, 도라지 가공품 등 20여개 품목이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청 광장 서울장터 무주지역 참여 단체는 반딧불유류사업단과 무주천마사업단, 산마을농조합법인(도라지청년)이 참여했다.

군은 서울시청 앞 광장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개막행사를 비롯해 문화 및 체험행사, 농·특산물 판



무주군은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광장 직거래 장터에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린다고 밝혔다.

매부스를 운영하며 나눔 행사, 소포장,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전라북도 배정 18개 부스 중 3개 부스를 배정받아 무주의 맛깔나고 품질이 좋은 농·특산물이

전국에 소개, 주변 소품팔 상권으로 연결되면서 무주 농업인들의 새로운 판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각종 이벤트·착한경제, 경품행사, 장만들기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보호 위해 특정물질 운반차량 통행 점검

진안군은 25일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용담호 인근 지방도 765호와 국도 22호선을 통행하는 수질오염물질 차량에 대해 통행증 발급 여부와 부차 상태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물환경보전법 제17에 의거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인근 일부 도로를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하고 유류 및 특

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서민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용담호 통행 제한 도로로 지정된 곳은 지방도 765호선(정천면 봉하리 휴게소 삼거리~용담댐 삼거리), 국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지방도 765호 교차점)이다. 이날 점검은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에서 실시했다.

통행증 없이 통행제한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22년 장수군 포도·토마토 재배 농업인 간담회

일시 : 2022. 8. 25.(목) 10:00 / 장소 : 장수군청 2층 회의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포도·토마토 농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포도·토마토 농가들과 간담회

### 최훈식 장수군수, 지속 발전 위해 애로사항 청취·의견 수렴

최훈식 장수군수는 2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포도·토마토 농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군 대표 농산물인 토마토와 신소득 작물인 포도 생산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 및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이날 관내 포도·토마토 농가 운영 현황,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농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농업농조합법인 회장은 "포도 농가의 부담 경감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에서 포도 지원사업을 확대해주길 바란다"며 "장수사과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약티켓과 같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기 토마토영농조합법인 회장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에 토마토 홍보관을 설치해 장수군 토마토도 많은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토마토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오미자 등 모든 농가가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장수군 포도·토마토 농업 발전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현재 군에서 과수분야 신소득작목으로 포도를 육성·지원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마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야간형 축제로 도약한다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첫날부터 드론쇼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야간형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3년 만에 열리는 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면모와 위용을 드러내면서 남대천 낙화놀이와 이어 드론쇼, 불꽃놀이 펼쳐지면서 감동과 환상을 관람객들에게 안겨줄 전망이다.

이번 축제는 생태축제를 넘어 빛과 야간 경관을 가미하면서 과감한 변신을 꾀했다. 첫날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게 될 프로그램은 단연 남대천 낙화놀이와 이어 드론쇼 무주교유에 10여 분 동안 진행될 불꽃쇼가 축제분위기를 고조키면서 불거리를 제공한다.

감동과 신선한 감격, 그리고 환상의 파노라마가 전개될 드론쇼는 불꽃놀이와 연계한 드론라이팅쇼 연출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높일 것이라 기대된다. 무주군과 반딧불제전위원회측의 설명이다. 드론쇼는 남대천교 아래 하천변 창



공에서 드론 300대가 약 10분 동안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저공과 고공 비행으로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무주군과 반딧불제전위원회는 드론의 참공 비행은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빛과 생명, 비행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명과 자연, 빛의 조화로운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야기'를 주제로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해 전남공원(한풍루),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 '찰백의 총' 안보현장을 찾아 목념을 하고 있다.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을지연습·안보현장 견학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시대대 연습 기간인 지난 22일 오전 6시에 2022년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전 직역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일일연습상황보고를 진행했다.

2022년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찰백의 총' 안보현장을 견학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직원들의 을지훈련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더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 직원은 "이번 견학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애국정신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국가안보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이 해증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농기센터, 복합기능성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특허미생물(GH1-13) 10톤을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연중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미생물(바실러스 GH1-13)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균으로 주로 감자, 고구마, 상추 등 다양한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며, 생육 활성, 병해 억제, 환경 스트레스 내성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특허 균주 GH1-13을 15농가에 보급했고 자체 실증 시험을 통해서도 유용미생물 활용 효과를 검증 중이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에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산림바우처카드로 진안 숲속 체험 즐기세요"

진안군은 산림바우처카드 이용대상자들에게 진안 산림관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연휴양림 등 전국 256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18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다.

진안군에서는 운장산자연휴양림과 대미생자연휴양림이 대상 기관이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산림복지전문업인 수퍼이코리점 원화과가 지난 6월 산림바우처카드 사용 전문업으로 선정되면서 진안 산악초자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양삼 탐방, 산양삼 체험키트 등 대면 및 비대면프로그램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산악초자연(063-433-8913)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장수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초래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올해 1월에서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2종(경유, 휘발유)을 20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이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고, 최대 10,000L까지만 지원 가능해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사업 신청 전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 배정 및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림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